

곡성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 대응

'맘 편한 임신·출산' 정책 시행...출산장려금 최대 40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산후조리비·난임 검사비 등 지원

곡성군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부터 0.5명대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맘 편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신부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 이동 검진차

량을 활용해 초음파 검사와 기형아 검사 등 무료 진료를 매월 2회 곡성군보건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산모 산후조리비도 지원한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하고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최대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하면 된다.

또한 임신 희망부부 중 가임력 검사 회

망자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진찰료·검사비를 여성과 남성 각각 최대 13만원, 5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자 냉동 수술비 지원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전남도 내 주소를 둔 여성 중 사업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도 대여할 수 있다. 곡성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는 태아심음측정기, 자동혈액계, 혈당 측정기 등을 최대 8개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의 출산율은 약 0.55명으로, 전국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곡성군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52)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김영필 기자

▶곡성군이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신부 등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산모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곡성군 제공>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 추진 '속도'

사업비 769억 확정...2029년 완공 1만여 일자리...지역 경제 활성화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 총사업비가 769억원으로 확정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연구소(조감도) 설립 사업 총사업비 769억원 확정' 발표에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사업을 이관받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총사업비로 책정됐던 475억원보다 많은 500억원 이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진행된 재조사 결과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만4천255㎡, 총사업비 1천1억원 규모로 건립하는 안을 도출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건립 규모를 추가 검토·협의를 지난 6일 대지면적 2만4천255㎡, 바닥면적 1만3천837㎡, 사업비 769억원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본조사설계비 7억2



천만원이 반영돼 2029년 완공 목표 달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보다 사업비가 23%가량 감액됐지만, 대지면적이 동일하기에 추후 확장 가능하다"며 "추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원안대로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전국 심뇌혈관센터의 컨트롤 타워로 ▲국가 심뇌혈관질환 연구 개발 ▲심뇌혈관질환 임상 정보 확보 ▲공익 목적의 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가의 연구기관이다.

전남 장성 설립으로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

지와 더불어 국가 보건의료 기반산업 3대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 밖에 1만여명 규모 고용 유발과 지역 활력 증진, 인구 유입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장성호 수변길 등 치유 여행지와 연계한 치유경제 창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특교세 7천만원 확보

담양군은 "최근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위로 최우수상을 받아 특별고부세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금사업 발굴·운영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에서 진행됐으며, 군은 지난 8월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까지 진출했다.

담양군은 수상의 원동력으로 제도 시행 전 밤 빠른 전달 부서 구성,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담양형 향촌부지를 구현하는



기금사업 운영 등을 꼽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담양군도 전국 1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한 답례품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과의 관계 및 기성성을 위한 기부자 예약방안 마련 등 지정 기부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서 평소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함께 힘써왔던 이기복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여수 시내버스, 내달부터 요금 인상

4년 만에 13.3% ↑...일반인 1천700원·중고생 1천360원

여수시는 11일 "오는 10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요금은 2020년 9월1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4년 만에 요금 조정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28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도내 시내버스 운임·요금 13.3% 인상'을 적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인근 시와 협의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 1천700원(200원 인상) ▲중·고등학생 1천360원(160원 인상) ▲초등학생 800원(100원 인상) 등으로 인상된다.

단 ▲시 정책사업인 '여수시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교통카드 이용 시 100원 할인 ▲무료 환승(하차 후 60분 이내 1회 한도)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고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K-패스 카드를 적극 활용해 교통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녹동항에서 최대 1천500대 규모의 화려한 드론쇼를 선보인다. 사진은 녹동항 드론쇼를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 모습. <고흥군 제공>

14-17일 매일 오후 9시 녹동항서...15·17일 불꽃쇼도

고흥군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녹동항에서 드론쇼 특별공연을 펼친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14일 '패밀리 프리포즈'를 주제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매일 오후 9시 녹동항에서 700대에서 최대 1천500대 규모의 드론쇼를 선보인다. '한국의 열과 맛', '추억여행' 등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했으며, 15일과 17

일에는 해상 불꽃쇼도 함께 열린다.

또한 드론쇼 공연에 앞서 녹동 바다 정원 내에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RC카 조종 체험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람객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50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명절을 맞아 고

향을 찾아온 귀향객과 군민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며 "드론쇼를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특성상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나, 군 대표 누리집,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nokdongdroneofficial) 등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고흥=최봉환 기자

구례군, 추석 종합대책 추진 8개 분야 종합상황실 운영

구례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가 지난 9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 수립 및 환경 정비 등 철저한 군정 활동을 지시했다.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연휴 기간 중 생활민원 사전 대비, 관내 환경정비 추진, 휴식리기 박람회와 비롯한 각종 행사 사전 준비·홍보 등 적극적인 현안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추석 연휴 동안 군청과 8개 읍·면은 물가·재난재해·교통·산불예방·생활폐기물·보건 등 8개 분야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군 이미지 조성을 위한 도로변 청결활동 및 가로수 정비 등을 병행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명절 위문품 전달도 지역 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군민 생활 안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군민 모두 불편함 없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흥군,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대 최대'

올해 수입 95억 예상...단기예금 전략 활용 성과

장흥군이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대 최대를 기록, 이자수입 1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장흥군의 자금운용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 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20억원대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자금운용으로 군 일반회계 자금만으로도 7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성과는 전남도 회계과장을 역임한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장흥군 입장에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흥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장기 예금상품 위주의 자금운용방식을 유지해 왔던 올해는 발상을 전환해 단기 예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유이자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흥=노홍록 기자